

‘글로벌 정책 연수 체험기’

미국 동부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을 가다



세계 경제 규모 1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글로벌 정책 연수를 앞두고 머릿속은 온갖 수식어들로 가득했다. 독립국가로서의 짧은 역사 동안 세계 최강대국이 된 나라 미국. 근래 들어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아메리칸 드림’을 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매력은 무엇일까. 커다란 물음표와 기대 속에 7박 9일의 글로벌 정책 연수를 통한 미국 여행이 시작됐다. 우리가 방문할 곳은 미국 동부. LA,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등 핫하고 정열적인 곳이 미국 서부라면, 미국 동부는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이자 미국 독립 전쟁부터 이어진 미국 역사의 중심지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3대장 뉴욕과 워싱턴 D.C., 보스턴을 찾아가 보기로 한다.

뉴욕

일찍이 금발의 꼬마가 나 홀로 거리를 누비며 2인조 도둑들을 골탕 먹이고 크리스마스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그 무대. 자유로운 뉴욕커들의 사랑과 우정, 브런치와 패션 등 수많은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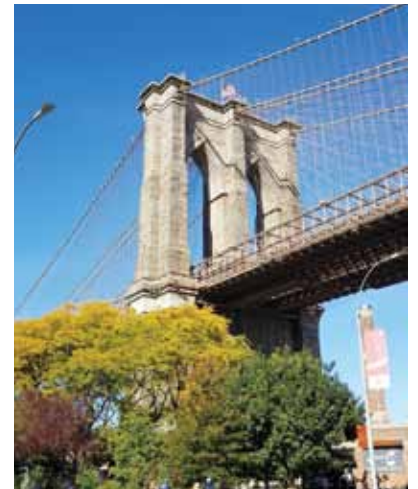
너비를 남기며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 되었던 그곳, 뉴욕.

다양한 기대감으로 첫발을 내디뎠으나, 뉴욕의 첫인상은 한 마디로 ‘추웠다’

뉴욕의 11월은 보통 우리나라의 11월과 비슷한 기온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방문한 기간 체감온도는 확연히 달랐다. 낮이면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햇살의 가을임에도 여전히 따사로웠던 한국과 달리 뉴욕의 11월은 이미 코끝 찡한 칼바람이 불어 가져간 훌쩍의 옷들을 모두 꺼내 입게 만드는 추위가 만연했다. 혹시 늦가을의 뉴욕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따뜻한 겨울옷들을 충분히 준비할 것!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던 추위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그 명성대로 우리의 오감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선물로 주었다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나라 미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답게 뉴욕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증샷을 남기게 되는 명소 중의 명소다. 때문에 내부 입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2~3개월 전부터 미리 예매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의 리버티섬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파크 부두에서 페리를 이용해야 한다. 멀리서 한눈에 들어오



페리에서 바라본 자유의 여신상



클래식한 분위기의 뉴욕 풍경

던 자유의 여신상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햇불까지 약 46m나 되는 거대한 위용을 느낄 수 있다. 왼손에는 독립선언서, 오른손은 평화의 상징인 햇불을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은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뉴욕 항구로 들어오는 이민 자들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인데, 자유의 여신상 주춧돌에 새겨진 “가난하고 지친 이들,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무리여, 내게로 오라”라는 내용의 엠마 라자루스의 시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뉴욕의 랜드마크하면 바로 이곳, 뉴욕시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타임스 스퀘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타임스 스퀘어는 1899년 오스카 헤머슈타인이 최초로 극장을 세우면서 브

로드웨이 공연문화가 시작된 곳으로서 공연장, 극장, 상점 등이 집중되어 있어 미국에서도 가장 변화하고 분주한 유흥지역이다. 24시간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뉴욕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만큼 광고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도 유명하다. 세계 각국의 인구가 몰려드는 만큼 다양한 맛집과 함께 디즈니 스토어, m&m 스토어 등의 캐릭터 쇼핑몰이 있어 가족여행으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1년에 뉴욕을 방문하는 인구만 해도 5천만 명 이상.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도로는 그야말로 교통대란이다. 때문에 뉴욕을 자유 여행한다면 지하철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것이다. 뉴

뉴욕 전경





뉴욕 타임스퀘어

욕의 지하철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오래된 역사만큼 노후된 시설로도 악명 높은 뉴욕의 지하철은 초창기 지하철역 출입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 건설한 노선 아래에 예전 노선과 플랫폼을 그대로 보전하는 등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고 보존하는 운영방식으로도 유명하다. 그런 올드하고 클래식한 뉴욕의 지하철역이 세계적 관광 명소인 뉴욕의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교통과 쇼핑,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첨단 환승역들이 눈에 띈다. 맨해튼 다운타운에 위치한 풀턴 센터(Fulton Center). 뉴욕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환승센터이다.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에는 9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과 함께 대형쇼핑몰이 구비되어 있어 하루에만 30만여 명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돔 형태의 천장 구조물에 채광을 높여 내부를 밝고 쾌적하게 만든 것이 인상 깊은 풀턴 센터. 무엇보다 27개의 출입구 모두에 경사로 및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배치하고, 화재경보기만 해도 총 1,950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자칫 화려한 이면 속에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안전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

발길을 사로잡는 또 다른 곳은 WTC 오컬러스다. 11개의 서로 다른 철도와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교통허브이자 쇼핑, 식사, 관광까지 책임지며 맨해튼의 또 다른 상징물이 된 이곳은 전

오컬러스 내부에서 올려다 본 천장 조경





오쿨러스 외관



9.11. 메모리얼 파크

세계 역사 중에서도 제일 많은 건설비가 들었다고 한다. 오쿨러스는 뉴욕의 9.11 테러 현장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지에 무려 12년에 걸쳐 지어진 곳이다, 테러가 일어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이 지역을 찾고 있었다. 또한 시에서는 추모 공간인 '9.11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오쿨러스는 9.11 메모리얼 파크 바로 옆에 세워졌는데, 9.11 테러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미를 담아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어린아이의 손에서 새가 날아오르는 형상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다고 한다. 자연채광으로 가득한 순백색의 실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멋진 예술품을 감상하는 듯하다. 외부 관광이 어려운 날씨가 곳은 그런 날, 이곳에 오면 교통과 쇼핑, 관광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 D.C.

미국 동부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바로 이곳, 워싱턴 D.C.를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수도인 만큼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비롯하여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및 각종 박물관, 기념물 등 미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다양한 관광 명소들이 많다. 워싱턴 D.C.는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20위에 선정된 만큼 여행하기가 다소 부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배경이 되었던 링컨 기념관 앞



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무료입장이 가능한 박물관과 기념관이 다양하여 이곳을 방문한 여행자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워싱턴 D.C. 관광 TIP - 무료입장 관광명소

1. 국립 동물원(Smithsonian National Zoological Park)
2. 국립 우주 항공 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3. 국립 자연사 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4. 국립 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rt)
5. 국립 수목원 (United States National Arboretum)
6. 펜타곤 투어 (The Pentagon)
7. 내셔널 몰 (National Mall)
8. 연방인쇄국 투어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9. 백악관 투어 (The White House)
10. 미 의회 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11. 연방 대법원 관람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2. 알링턴 국립묘지 (Arlington National Cemetery)



1. 국립 자연사 박물관 입구의 코끼리 동상
2. 국립 우주 항공 박물관
3. 백악관
4. 국회의사당

워싱턴 D.C.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워싱턴 기념탑이다. 미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위업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으로 도시의 어느 장소에 있든지 기념탑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국회에 경의를 표하는 목적으로 건설된 워싱턴 기념탑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에서는 고층 빌딩을 보기 어렵다. 워싱턴 기념탑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기념탑의 상단부와 하단부의 돌 색상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자금

부족과 남북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37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기념탑에 들어가는 화강암과 대리석에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

많은 명소 중에서도 눈에 익은 이곳!! 눈 앞에 펼쳐진 대형 연못과 그 맞은편에 곳곳이 서 있는 워싱턴 기념탑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연설이 이뤄지고, 영화 '포레스트검프'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링컨 기념관이다. 링컨 기념관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 받는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의 공적을 기리며 건축한 기념관이다. 입구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높이 5.8m의 거대한 링컨 상은 미국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동상 중의 하나로 꼽힌다. 기념관 내부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의 명연설로 남은 '게티즈버그 연설'이 새겨져 있다. 노예제를 폐지하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국민을 우선으로 했던 그는 미국의 전통인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 미국의 대통령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최근 인구유입이 폭증하면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한 곳이라고 한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

도시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D.C. 교통국

선으로 하여 2024년까지 사망률 제로를 목표로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로 CCTV 설치를 확대하여 과속, 과적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경찰이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음주 단속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 D.C의 경우 중앙 상황실에서 차량 현황을 CCTV 및 디지털 주차 센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앱을 통하여 빈 주차공간 정보와 지역별 주차공간의 가격 및 불법주차 단속 등의 주차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링컨 기념관 외경



링컨기념관 입구에 위치한 링컨상

오후 6시까지의 시내 중심가의 주차요금을 매우 비싸게 받고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교통난의 위험과 불편을 없애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들의 안전뿐 아니라 이곳을 여행하는 이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워싱턴 D.C.는 여전히 사랑받는 여행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보스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수도인 보스턴은 미국 건국 200년 역사를 지닌,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로 미국 독립의 성지인 만큼 역사적인 장소가 많다고 한다. 우리는 짧은 일정 동안 잠시 들린 터라 아쉽게도 많은 곳을 볼 수는 없었지만, ‘프리덤 트레일’이라는 역사 산책코스를 쫓 따라가다 보면 보스턴의 건국 사적들을 골고루 둘러 볼 수 있다고 하니 이곳을 여행하는 이들이 참고한다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보스턴 여행 TIP - ‘프리덤 트레일’

회색과 붉은 벽돌로 표시되어 있는 ‘프리덤 트레일’은 약 4km의 산책 코스로 보스턴 코먼, 주 의사당, 파크 스트리트 교회 등 16개의 사적을 볼 수 있으며 도보로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다.

프리덤 트레일을 따라가다 보면 보스턴의 관광명소 퀸시 마켓(Quincy Market)을 만날 수 있다. 전혀 마켓 같지 않은 고급스러운 외관을 지닌 퀸시 마켓은 17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19세기부터 각종 식료품을 판매했던 곳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중앙의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잘 정돈된 소규모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꼭 먹는 것이 있다면 바로 클램차우더(clam chowder : 조갯살, 베이컨, 양파 셀러리, 감자 당근 등을 넣고 끓인 미국의 수프)와 로브스터 샌드위치이다. 해산물요리가 유명한 보스턴답게 싱싱한 재료들로 만든 음식들의 맛이 아주 일품이다. 타 지역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비싸게 팔고 있는 로브스터도 이곳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보스턴은 “교육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MIT, 보스턴 대학, 보스턴 칼리지, 웰즐리 대학 등 수많은 명문 대학들이 있다. 또한 에머슨, 호손, 롱펠로, 휘티어, 소로 등의 문인들이 이곳에

서 활약하여 '미국의 아테네'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보스턴을 교육과 학문의 명사로 만든 것은 바로 이곳,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아닐까?

1636년에 세워진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 아이비리그(미국 북동부에 있는 8개의 명문대학 : 브라운(Brown)·컬럼비아(Columbia)·코넬(Cornell)·다트머스(Dartmouth)·하버드(Harvard)·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프린스턴(Princeton)·예일(Yale)) 사립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교육 기관으로 졸업생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47명에 달하고, 시어도어 루스벨트, 존 F. 케네디와 버락 오바마와 같은 역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전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 한국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 무수한 유명 인사들을 배출했다.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핫플레이스는 바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기증한 존 하버드의 동상이다. 동상의 발을 만지면 자신이나 그 자손이 하버드에 입학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 이곳에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거나 캠퍼스를 방문한 학생들 및 많은 관광객들이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항상 긴 줄을 서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버드 대학교 내에 있는 존 하버드의 동상은



하버드 대학교 대도서관



존 하버드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

퀸시 마켓 외경
퀸시 마켓 내부
로브스터 샌드위치, 클램차우더

사실 존 하버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존 하버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존재하지 않아 당시의 하버드 학생을 모델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만큼 일찍부터 교통난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스턴은 다운타운 고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하는 빅딕(Big-Dig: 땅을 크게 파다는 뜻) 프로젝트를 실시. 준공까지 무려 25년여에 걸친 시간 끝에 지난 2007년에 완료되었다. 프로젝트 시행 후 차량 통행시간은 무려 62%나 감소하였고, 일산화탄소는 12% 감소하였다고 한다. 공사 기간 지하 고속도로의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시민들을 10여 년에 걸쳐 설득하며, 환기구를 조형물처럼 보기 좋게 디자인하거나 빌딩 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간 대목에서는 사람들과 더불어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한 보스턴시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 덕분에 보스턴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오랜 시간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천혜의 자연, 눈부신 풍광, 질 좋은 교육환경과 넘치는 자유 등등 미국을 찾는 사람들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수많은 장점 이외에도 많은 이면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게 하는 데에는 다양함이 공존할 수 있도록 또한 작은 것도 소외됨이 없도록 하는 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과거를 보수, 유지하여 지켜나가고, 보다 나아진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변화를 꾀하는 현재가 있기에 그곳은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세계를 움직이는 강국으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사랑스러운 여행지로 존재할 것이다. 🏠

여행 TIP - 핸드폰 데이터 사용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오는 전화와 문자를 꼭 받아야 한다면 통신사 데이터 로밍을 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인터넷만 잘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미국 통신사 유심칩을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가면 사용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여행 기간 사용 가능한 일수만큼 정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미국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현재 사용하는 국내 통신사 유심을 제거하고 구매한 미국 통신사 유심으로 갈아 끼우고 전원을 켜다가 키면 된다. 주의할 점은 미국 통신사마다 유심칩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아보고 구매하기를 추천한다.

보스턴시 교통국



빅딕 프로젝트 관련 보스턴 시내 모형

